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10. 16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0/9~10/13)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 초, 견조한 미 고용시장 상황과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소식에 따른 유가 상승에도 시장은 매파적 연준 인사의 완화적 발언에 주목하며 환율 소폭 하락
- 중반 들어,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 등에 미 국채금리 하락하고 반도체 주 중심 국내 증시 상승세로 외국인 자금 유입된 측면 반영하며 환율은 큰 폭 하락
- 후반 들어, 9월 FOMC 의사록이 비둘기적으로 평가되며 강달러 제한됨에 따라 미 CPI 관망세 속 좁은 폭의 등락 흐름 이어지며 소폭 하락. 이어 견조한 미 CPI와 미 장기채 수요 부진에 따른 수익률 상승 등으로 상방 압력 우위 보이는 가운데, 수급상 수출업체 네고물량 우위 등에 상단 제한되며 1,350원으로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9월 CPI에 이은 미시간대 10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남은 FOMC에서의 추가 긴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환율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중동궤 분쟁 이슈가 이란의 개입 가능성 속에 이스라엘의 전격 진격을 앞두고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 등도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율의 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48.4	1,351.7	1,337.5	1,350.0	+1.6

예상거래범위

1,340원 ~ 1,360원



엔·유로화 동향 (10/9~10/13)



유로화 동향

- 주초,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와 독일 산업생산지표 연속 마이너스 기록한 데 따른 유로존 경기 우려 등에 약세 출발. 이어 연준 관계자들의 연이은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달러인덱스 하락한 측면 반영하며 달러 대비 유로 강세 전환
- 중반 들어, 9월 FOMC 의사록 공개 후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속 위험선호 심리 회복되며 유로 소폭 강세
- 후반, 견조한 미 물가와 고용 지표가 긴축 지속에 대한 우려 자극하며 유로화는 큰 폭의 약세 시현. 이어 주 후반, 유로존 산업생산지표 부진한 가운데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험회피 심리 강화됨에 따라 유로 약세 심화되며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중동발 리스크 속 안전자산 수요와 미 채권시장 휴장에 따른 엔캐리 제한 등으로 달러 대비 엔화 강세 흐름 보이며 출발. 이어 일본 재무상의 엔화 약세 원인은 금리차일 가능성 언급 등 완화적 스탠스 지속 의지 시사 등에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BOJ의 통화정책 차별화 영향 속 일본 수입업체의 엔화 매도세 등이 반영되며 약세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미 CPI가 예상치 상회한 반면 일본 경제지표 부진으로 시장 내 BOJ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감 낮아지면서 약세 심화. 이어 중동 분쟁 확산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일본 재무상의 개입 가능성 시사 등으로 약세 제한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587	1.0639	1.0495	1.0508	-0.0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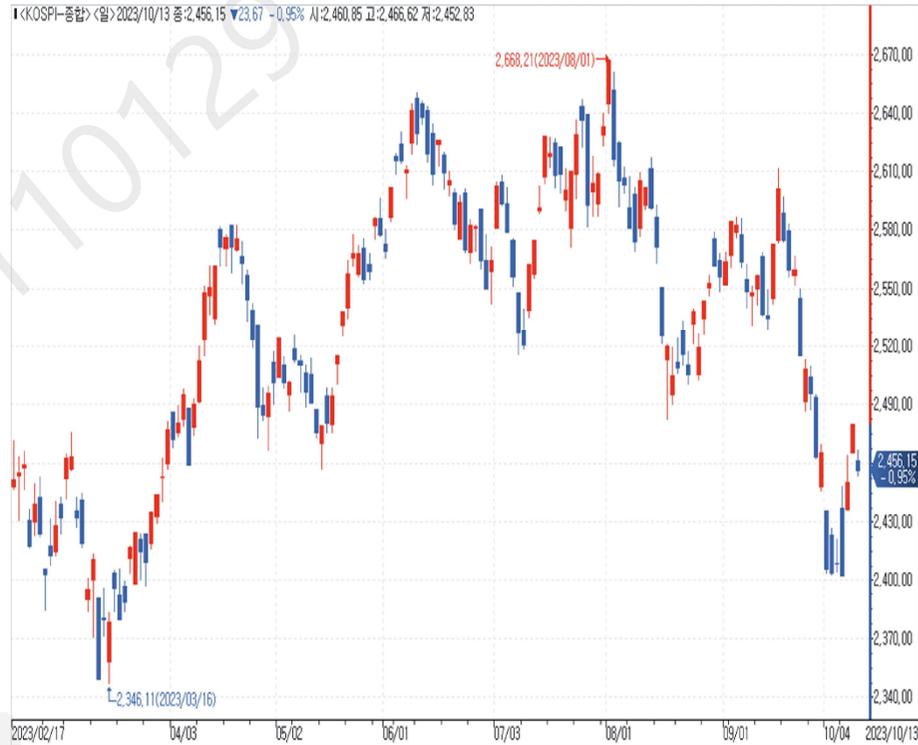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9.3	149.8	148.2	149.6	+0.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0/10~10/13)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연휴기간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의 지연 반영 등이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중동궤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출발한 양상. 이어 연준 관계자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비둘기적 언급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진 국면
- 후반 들어, 9월 CPI 발표를 앞두고 미 국채금리가 하락 추세를 나타낸 방향성에 연동되며 하락 지속 했으나, 주 후반, 9월 CPI가 시장 예상을 다소 상회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자극 받은 가운데 미 재무부에서의 200억 달러 규모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 등을 반영하며 상승 전환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차 전지 업종 약세에 따라 하락 출발. 이어 중동 약재에도 국제 유가 하락과 미 국채금리 하락 속 연준 인사의 비둘기적 발언으로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이어, 미 국채금리의 하락 추세가 이어짐에 따른 위험 선호 영향 등으로 상승 흐름 이어진 후, 주 후반, 미국 9월 CPI가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한 결과를 보이면서 건축 추가에 대한 우려와 중동지역의 이스라엘 전격 지상군 투입 임박 소식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되면서 하락 전환하며 마감